

國文學과 平生을 함께

張 德 順

(서울大 國語國文學科)

한글과 함께

철이 들면서 한글을 읽었으니 어떻게 공부해서 한글을 알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독교 가정에서 매일 저녁 가정에배 베에 모든 식구들이 돌아가며 성경을 몇 節씩 읽는데 어린 나이에 나도 어엿한 멤버가 되어서 聖書輪讀에 참석했는데 그것이 아마 대여섯 살 때였을 것이다.

나의 할아버지는 장로였었다. 강원도에서는 가장 먼저 머리를 깎고 기독교에 입교하고, 개성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셨다고 한다. 初代敎育의 傳道師까지 지낸 경력이 있으니 독실한 신자였었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정에배를 열심히 인도하셨다. 그 덕에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따라서 한글로 쓴 책은 무엇이든 닦치는 대로 읽었다.

내가 읽은 최초의 古典은 기독교성서였고, 다음이 존·번연의 <天路歷程> 번역본이었다. 할아버지께서 얻어 주신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번역책이고, 挿話까지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다. 이렇게 한글과 함께 어릴 적을 지낸 나는 평생을 한글과 함께 지내게 된 것이다. 내가 한국의 고전문학을 공부하게 된 동기는 한글을 깨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소학교(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千字文과

明心寶鑑 정도는 읽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뜻을 따라 동네에 있는 서당에 나갔다. 南氏姓을 가지신 儒學者 앞에 무릎을 꿇고 열 명도 안 되는 어린이들과 함께 千字文을 배우며 붓글씨도 배웠다. 어렸을 때엔 한문선생이 무섭기만 해서 열심히 공부한 기억밖에 없다. 커서 생각하니 그 유학자 선생님은 큰 학자였었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 생각엔 소학교엔 안 들어갔어도 한 십 년 동안 그 스승 밑에서 한문 공부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십 년까지는 안 가도 四書三經 정도까지 읽었어도 나의 학문 연구엔 效果가 컸을 것이다. 소학교에 입학하면서 서당 공부는 중단되었다. 어른들의 뜻대로 <千字文>, <童蒙先習>, <明心寶鑑>을 다 떼었을 뿐이었다.

漢文공부의 결과 나의 생활에 변화된 준 것은 가정에배의 聖書輪讀 때에 國漢文混用의 성경책을 읽는 것이었다. 漢文에 한글로 만든 단 정도의 성경을 音讀을 하지 않고 訓讀을 하는 것이다. 그 訓讀이 순한글의 성경과 一致해야만 할 아버지는 만족하셨다. 나의 漢字 실력이 이 정도가 되니 어른들은 만족하시었고, 나도 기분은 좋았다.

소학교 입학 전에 나는 웬만한 책은 모두 읽을 수 있게 되어서 읽은 거리만 찾아 다녔고, 이웃집에 사는 할머니들은 이야기책을 들고 와서 읽어 달라고 했다. <심정전>, <홍부전>, <장화

홍련전) 등 많은 책을 읽었고, 漢文套의 어려운 語句의 해석까지 했었는데 춘향전 같은 소설은 漢詩, 故事成語가 많아서 읽기는 읽어도(한글이니) 뜻을 몰라서 쫄쫄메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古典을 읽었다.

소학교에 입학하여서 느낀 것은 다른 어린이들은 일본의 文字(假名)나 일본말은 모두 익혔는데 나만이 이 방면엔 무식했고, ‘朝鮮語讀本’ 시간엔 오직 나만이 ‘獨步的인 實力者’였다. 담임선생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를 몹시 귀여워했고, 日本말을 몰라서 종종 웃음거리가 되어도 골간 털어 주곤 했다.

중학교에서 孟子를 배웠는데 日本式으로 읽었다. 대단히 불편한 방법이었으나 재미는 있었다. 日本式으로 읽는 漢文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뜻에 맞추어 읽는데 지금 생각해도 日本式은 漢文化를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消化시키지 못한 方法이었던 것 같다. 나는 될 수만 있으면 우리의 方法으로 漢文을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그대에 배운 한문의 實力이 나의 古典 공부할 위해선 제법 빈거름이 되어었다.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朝鮮語及漢文讀本’이란 교과목이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있었고, 日本式이기는 하나 漢文時間도 있어서 나에게 더할 것 없는 多幸이었다.

중학교 5년을 마치고 1년 동안 시골의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敎育이 있는 마을이어서 한때 교회도 도우면서 일실했던 일을 했다. 이때에梨花女專에 계시던 ‘朝鮮文學’을 강의하시던 李熙昇 선생이 편찬하신 <朝鮮文學精華上>이 출판되었다. 내용은 모두 우리의 古典인데 時調, 小說, 隨筆, 歌辭 등을 선발해서 엮은 책으로 그야말로 우리 古典의 精華만을 뽑은 것이었다. 나는 이 책을 틈 빈이로 通讀하면서 敎育의 靑年들에게 돌아가며 암도록 권했다. 당시 日本 사람들은 소위 ‘가루나’라고 하는 日本 노래로 엮은 카야드를 보급시키며 日本文化 普及에 血眼이 되었는데, 우리의 出版界에선 이에 맞서서 ‘時調노리’ 카야드를 만들어서 보급시켰다. 이 시조노리 카야드가 교회들 통해서 유행하게 되자 時調를 외우는 운동이 인게 되었고, 따라서

내가 추천한 <朝鮮文學精華>에 時代別, 樣式別로 많은 시조가 수록되어 있어서 시조 공부엔 적당했었다. 교회에 있는 少年들은 時調 數十首씩을 거뜬히 외우고 있었고, 靑年들은 우리의 古典文學이 어떤 것인가를 대강 짐작할 수가 있었다. 내가 이렇게 우리의 古典을 어린이와 靑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민족운동 혹은 抗日운동이라고 의식한 것은 아니다. 오직 우리의 古典이 좋아서 그런 것뿐이다. 다만 어린이들이 日本의 노래를 외우고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의 時調를 읊조리는 편이 더 듣기 좋아서였다. 이런 것이 결국은 民族을 意識하고 또 抗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 해석인 뿐이다. 나는 이런 論理를 떠나서 우리의 古典을 좋아했을 뿐이다.

중학교 졸업반에서 대개의 학생들은 망설이게 된다. 上級學校의 선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방황하지 않았다. 졸업하자마자 시골의 소학교 교사로 부임했고, 1년 지나서는 그대로 우리의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한눈팔지 않고 학교를 떠났기 때문이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라는 의미에서 집의 어른들은 무조건 찬성이고, 나는 우리의 문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조건 하나로 延禧專門 文科에 입학했던 것이다.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神學 공부를 권하시면서 전문학교 문과를 마치고 신학을 하면 더 훌륭한 것이라고 대단히 만족하시었고, 나도 신학을 안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우선 日本人學校가 아닌 우리 학교에 입학했다는 기쁨과 우리의 古典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뿐이다.

古典文學과 함께

延禧文科에서 우리의 古典으로 <杜詩滄解>·<九雲夢>·<松江歌辭> 등을 프린트본으로 通讀했고, 漢文으로는 <資治通鑑>을 읽었다. 이것들은 학교에서 강의로 들은 것이고, 따로 春香傳, 興夫傳, 장화홍련전 등 많은 옛 小說들을 흥미거리가 아닌 作品研究로서 精讀했다. 그 중에서 당시 나에게 큰 감명을 준 작품은 <九雲夢>이다. 序章인 天上世界에서 仙男, 仙女들의 對話 특히

石橋上에서의 男女의 對話가 적이나 인상적이었다. 다른 小說들의 무대가 가정이나 한 마을에 국한되어 있는데 비해 九雲夢은 그야말로 時間과 空間을 초월한 世界를 갖고 있어서 어린 나로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作品이 中國의 夢小說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外國의 作品에 비해 손색이 없는 作品이라고 생각해서 정녕 자랑스러웠다.

時·空間의 얘기가 나왔으니 기억나는 것이 있다. 黃眞伊의 時調이다. 「동짓달 지나긴 밤을……」의 이 시조를 처음 배운 때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틀어 내어, 「春風이불 아래 서리 서리 넣었다가」 등은 時間을 그렇게 마를질한다는 것인데 당시엔 인듯 끌리지 않았다. 學友들과 시조를 얘기하면서 眞伊의 逸話, 眞伊의 墓所 이야기들을 하다가 “時間을 제멋대로 마를질하는 女人이 알빔다”는 어느 老學生의 농담을 듣고 나는 순간적으로 그 詩意를 깨달았던 것이다. 이 老學生은 어려서부터 書堂에서 漢文을 많이 공부하다가 늦게 입학한 漢詩人인데 우리는 그를 ‘進士’라고 빌명을 지어 주었다. 이때부터 나는 ‘進士’와 친해졌고, 그는 또 나를 몹시 귀여워 해줬다. 나보다 7,8세 年上이었는데 6.25 동란 중 그는 江原道 땅에서 戰死했다. 나는 지금도 종종 이 老學生을 기억하며 그때 그에게서 漢詩를 배워 두지 못한 것을 後悔하곤 한다.

却說하고, 眞伊詩調에서 요새 말로 次元이 높은 詩想을 깨닫고, 黃眞伊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에 관한 逸話 모두 수집했고, 그의 墓가 長湍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듣고 學友들과 그의 墓所를 찾기로 했다. 長湍은 開城에서 가깝다. 학우 중에 開城 친구가 있어서 그를 앞세우고 우선 開城에 들러서 一泊하고, 이튿날 막연히 眞伊의 墓를 찾아 나섰다. 文獻에는 長湍 근교 路邊에 ‘黃氏之墓’라는 비석이 서 있다고 해서 찾아 배웠으나 끝내 찾지를 못했다.

1941년이 저물어 갈 무렵 日本은 眞珠灣을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米英擊滅’이란 구호를 외치며 日帝는 이른바 敵性國의 학교라고 해서 延禧專門學校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또 소위 學徒兵志願이라고 해서 文科系 專門, 大學生을

모두 軍人으로 징발하려고 했다. 나는 抗日家庭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1943년에 滿洲地方으로 亡命(?)을 했다. 당시 나의 한아버지인 비뚤한 가족은 鎭原에 있었는데, 당시의 돈 1,000원을 쥐고 고향엔 들르지도 않고 기약 없는 亡命의 길을 떠난 것이다.

1945년의 해방을 吉林省 延吉地方에서 맞았다. 延吉에는 師範學校가 있었는데 해방이 되자 한글교육의 봄이 일어나면서 나에게 한글교사로서의 임명령을 내리고 해서 1945년 12월까지 사범학교에서 한글 맞춤법을 주로 가르쳤으나 해방으로 흥분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맞춤법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時調, 옛 小說, 가사 등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대로 프린트해서 가르쳤다.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배워 둔 것은 아니었다. 허나 이렇게 가르치는 기회란 맞게 되니 그 보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남을 가르친다는 보람이 이렇게 뿌듯한지를 미처 몰랐었다.

그러나 이제 남의 땅인 滿洲地方에서 중등학교 교사로서 만족하느니보다 日帝官憲을 피하느라고 고향에도 들르지 못한 심정도 달랠 겸 1945년 12월말경에 트럭을 타고 頭滿江을 건넜고, 계속해서 기차로 고향인 靑川에 닿았는데 거기서 몇 달 있다가 서울로 越南했다.

서울에 오자마자 서울대학교 문리대(당시는 國立大 이전이어서 京城大學 法文學部였다) 국문과에 입학했다.

나의 學問

드디어 나는 나의 學問을 찾게 되었다. 해방 후의 한국문학, 곧 國文學은 전혀 미개척의 분야였었다. 그러나 先賢의 國學者들에 의해 곧 國文學은 軌道에 올랐고, 또 日帝下에서도 한국학에 관심을 두고 있던 나이 든 學生들에 의해, 서울대학교 국문과의 합동 연구실은 그야말로 한국문학의 종본산처럼 되었다. 무엇보다도 국문학 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발굴된 자료 문 읽는 일, 공부한 결과론 발표하고 토론하는 일들이 매일 계속되었다.

가람 李秉岐 선생에게서 시조, 劇歌(판소리),

漢文學史의 강의론, 陶南 趙潤濟 선생에게서 歐
薛, 國文學史 등의 강의론 들으며 나는 國文學
이야말로 나의 學問임을 안았고, 내 平生을 이
학문을 위해 바치겠다고 다짐하며 공부했다.

1947년 10월 24~26일 사이에 古典文學 資料
만을 가지고 圖書展示會를 우리 국문과의 주최
로 열었다(許筠 330週年 靑丘永言編纂 220週
年 記念). 寫本, 版本만을 수집하여 300餘點을
수집·정리하여 전시했었는데, 해방 직후의 인
이어서 宋備된 것도 많았으나 무엇보다도 젊은
학생들에게 우리 古典을 보고, 만져 본다는 것
만으로도 만족을 주었다. 그리고 읽고 싶고, 가
지고 싶던 자료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방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전시회가 지난 후부터는 국문과의 합동연구실에
동사관을 비치하고 날마다 자료 복사에 분주하
였다.

이렇게 해서 해방 직후의 국문학은 자료의 정
리와 보급에 주력했고, 國文學의 方法도 文獻
위주의 方法論을 體系 세우는 데 주력했으며, 國
文學史의 定立도 陶南先生의 國文學史론 기초로
하여 새로운 방법을 摸索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직접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를 맡아 보니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자료의 貧困과 方法論의
確立이었다. 우리의 古典은 漢文學의 영향을 많
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中國古典의 지식이 필요
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시조, 가사, 소설에
나오는 中國式用語, 故事 등의 정리가 시급했다.
나는 이 일의 정리에 4,5년의 시간을 보냈다.
다음은 나의 方法에 의한 國文學의 정리를 위해
1960년에 <國文學通論>을 刊行했다. 나는 한글
文學을 주로 하여 이 책을 엮었다. 그러나 漢字
文學은 이른바 第2의 國文學처럼 배웠다. 그
러니 文學史의 時代區分도 15세기의 訓民正音創
制를 分水嶺으로 삼아서 시도했던 것이다. 國文
學의 樣式論에서도 많은 異說들이 있었으나 나
는 나테르의 方法을 세워 보았다. 요는 이 著書
는 곧 나의 前半期の 國文學을 정리한 책인 셈
이다. 나는 우리 古典文學 중에서도 小說 등의
散文을 대학에서 강의했다. 특히 옛 小說의 강
독을 강의하다 보면 우리의 옛 信仰, 慣習이 많

이 나와서 그 해석은 民俗學的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기울어
지게 되는 學問的인 傾向이다. 내가 意識的으로
民俗學을 공부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향
이 내가 國文學의 民俗學的 接近을 시도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얻어진 論叢들이
沈淸傳, 興夫傳 등의 民俗學的 研究요, 또 많은
小說들의 背景을 이루고 있는 說話研究이다.

이미 어렸을 때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
고, 그 분위기에서 자라났다. 그래서 집안에서
제사 한번 지낸 일이 없어서 冠·婚·喪·祭의
四禮慣習에 대해선 무식했다. 그런데 우리의 古
典에는 이런 慣習이 도처에 나타나 있고, 民間
信仰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에서는 '迷信'이니
'우상'이니 하는 제도 등이 허다하게 나타나는
데 나는 이런 慣習을 모두 文獻과 現地踏查를
동해서 새로 배웠다. 作品마다 제사상 차리는
것, 제사 지내는 節次 등이 나와서 친구들에게
물으면 대개 깜짝 깜짝 놀란다. 古典文學을 전
공한다면서 그것도 모르느냐고. 제사 음식을 진
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는 모두 새롭게 공부
하면서 우리의 옛 風俗과 信仰을 흥미를 갖고
공부했다.

나의 친구 중에 英文學을 연구하는 이가 있다.
이 친구는 儒敎的 家庭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우리의 慣行, 信仰
을 많이 알고 있다. 반대로 英文學에 많이 등장
하는 기독교적인 常識에 대해선 또 무식했다.
예컨대 바이블에 나오는 百合花의 비유, 농부의
비유 같은 데 대해서 몹시 험들어 했다. 마치
내가 우리 풍속에서 '紅東白西'가 무엇인지 전
혀 모르듯이 말이다. 이는 학문과 가정생활과의
乖離 현상이 종종 갈등을 가져오게 하는 예이기
는 하나, 나는 그렇다고 나의 學問 선택에 대해
서 후회하지는 않고 있다.

요컨대 國文學을 공부하다가 우리의 民間信仰,
慣習, 意識構造에까지 학문의 범위를 넓히는 것
은 나를 위해 꼭이나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다
가 1960년인가 1961년에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口碑文學'과 '說話文學'이란 講座가 신설되었
다. 이 새 강좌를 누가 맡느냐가 문제되었으나
당시 科敎수들은 一言半辭의 異論도 없이 내게

말했던 것이다. 나도 당시의 나의 學問的 傾向이 이미 이 방면으로 쏠렸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서 이 두 강좌를 받게 되었다.

이 강좌들은 外國 大學에는 이미 개설된 지 오래다. 구라과 같은 데는 이미 한 세기 전에 이와 비슷한 강좌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外國 大學의 例도 참고하면서 열심히 이 방면을 공부하였다. 文獻爲主에서 벗어나 필드 워크(field work)도 하여 現地에 살아 있는 口碑傳承을 수집·정리하여 한국의 口碑文學과 說話文學 定立에 노력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說話文學의 研究>라는 著書를 냈고, 이것이 나의 學位論文이었다. 그리고 나의 강의실, 연구실에서 나온 제자들과 共著 <口碑文學概說>을 出刊했는데 이 책은 지금도 大學教材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학문적인 矜持이란까, 나쁘게 말해서 近視眼的인 感情的 學究態度를 止揚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文學史에서의 漢字文學에 대한 態度이다. 1945년 직후의 國學界에서는 漢字로 된 文學遺産을 國文學의 울타리 밖의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것이 곧 感情論이라는 것이다. 나는 당시에도 이 過激論엔 反對였다. 그래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訓民正音 창제를 계기로 그 前과 後의 漢字文學을 구분해서 대우하자고 했다. 그러나 해가 지나면서 또 外國 文學의 例를 참고하면서 점차 이 태도도 바뀌어서 漢字의 文學遺産도 우리의 正當한 文學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大學院 강의에서는 주로 漢文學에 置重해서 지도하기에 이르렀다. 漢字의 文學史가 한글의 文學史보다 훨씬 길고, 作品의 量이나 質에 있어서도 漢文學이 훨씬 우세한 國文學의 現實을 외면하고 한국문학을 云謂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大學院에서 漢文學研究를 권장하니 박사학위 논문의 범위도 꼭 넓어져서

국문학 연구의 분야가 무한히 擴張된 기분이었다. 우리 국문과에서 新制博士가 1976년에 一號로 나오기 시작하여 1986년 2월까지 29명(古典文學)인데 이 중 漢文學의 논문이 12명이고 한글文學이 10명, 說話, 巫歌 등 說話文學이 7명이란 결과를 낳았다. 이 통계만 가지고도 國文學의 동향이 이렇게 변모해 가느냐를 짐작할 수 있다.

國文學은 하나

나는 어렸을 때 먼저 한글을 알았고 이어서 漢文을 배운 다음에 國漢文混用聖書를 우리말로 訓讀했다는 말을 이미 했다. 이는 나의 國文學의 길을 미리 豫示한 것 같은 느낌이다. 애초엔 한글文學만을 우리의 古典이라고 여겼었는데 나의 後半期에 와서는 漢文學도 우리 國文學으로 대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글로 된 文學도, 漢字로 된 文學도 그리고 口碑傳承하는 文學도 모두 한국문학이다. 純國文學이니 準國文學이란 用語는 필요없게 되었다. 한국문학은 이 모두를 포용한 하나의 文學일 뿐이다. 또 大學 강의에서 現代文學이니 古典文學이니 하는 것도 편의상 분류한 것이지 古典과 現代 사이에 높은 장벽을 쌓은 것은 아니다. 역시 하나의 국문학이다.

나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韓國文學史>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위에 든 모든 것을 하나로 묶었다. 現代文學史도 여기에 넣은 것도 나의 전공과는 거리가 있으나 '한국문학은 하나'라는 大前提를 確立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나의 學問을 <국문학동론> 시대에서 <실화문학연구> 시대를 거쳐 결국 <한국문학사> 시대에서 마무리하는 셈이 된다. *